인사의 글

봄의 길목에서

홍 영 선
성모병원 종양내과 과장 · 본회 홍보부장

이제는 추위가 와도 별로 춥게 느껴지지 않는다. 머지 않아 모든 나무와 꽃들이 새 순을 내고 잎과 봉오리를 피울 것을 알고 있기 대문이다. 벌써 남쪽 지방 어디에선가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요 몇 일 사이의 일이다.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신비하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정해진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사 기다리기 급해 마음 졸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일일 뿐인가 보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시작 된 것이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고통 받는 이들 속에 함께하시며 같이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돌보고 그 분의 뜻을 따라 고통 받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자 모인 의로운 마음들이 1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의 발자취는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 모습을 남기고 있을까 자문해 본다. 사실 한국 호스피스의 역사는 한국 가톨릭 교회 안의 호스피스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아직 채 일어서지 못한 1964년에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호스피스를 시작한 이들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의 수녀들이고, 1981년 학생들, 간호사들, 수녀들과 함께 호스피스 모임을 처음 주도하여 시작한 이는 당시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가톨릭 의대 종양내과의 이경식 교수였으며, 1988년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시작 된 곳은 강남 성모병원 이었다.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가 설립되고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 된 곳도 가톨릭 간호대학 이고,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설립에도 가톨릭 의대의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호스피스를 논하려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호스피스를 논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국내의 호스피스와 관련된 일에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의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제대로 성사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명성에 걸 맞는 모습만을 보이며 살아오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 혹시 우리가 자기 도취에 빠져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너무 실적과 명성에 집착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동료들과 나누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윗자리에 앉으려고만 한 적을 없었는지? 한국 호스피스의 선두주자로써의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게을리 한 적은 없었는지? 협회의 탄생 1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전에 끝 없는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고질 적인 결벽증 때문일 것이리라.

진정 호스피스는 주님의 것이고 그 분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더라도, 결국은 그 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공을 다투는 우리 인간의 천년도 그 분께는 하루 밤 꿈 같다고 하니 말이다.